

통일부 장관, 독일 연방의회 부의장 면담

-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22일(월) 오후, 방한 중인 보도 라멜로(Bodo Ramelow) 독일 연방의회 하원 부의장과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독일측의 협력을 당부했다.
 - 한반도의 분단이 8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질화의 심화와 이산가족 문제가 미해결된 채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급함을 강조했다.
 - 아울러 독일이 ‘동방정책’을 통해 동·서독의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 지향점을 이재명 정부의 ‘한반도 평화공존 정책’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.
- 보도 라멜로 부의장은 브란트 총리의 ‘접근을 통한 변화’ 정책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진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.
 - 독일도 분단시절 동·서독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우발적 충돌로 격화될 가능성과 불안을 항상 안고 있었음을 상기하고,
 - 과거 동·서독 접경지역 주민들 간 제한적인 왕래와 교류가 이질감을 완화하고 훗날 교류협력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조언했다.
-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.

붙임 : 면담 사진

담당 부서	통일정책실	책임자	과 장	서영신 (02-2100-2370)
	국제협력기획과	담당자	사무관	노일준 (02-2100-2372)

